

2005 학 년 도
석사학위논문

칼 빈 의 교 회 론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유 현

칼 빈 의 교 회 론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도: 최 윤 배 교수

이 논문을 목회신학석사학위(Th. M. M.)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유 현

김 유 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최 윤 배 교수 _____ 인

부 심: 김 명 용 교수 _____ 인

부 심: 신 옥 수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년 12월

감사의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기기도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 돌이켜 보면, 수업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정해서 논문을 써보겠다는 계획은 어디로 가고, 논문 마감시간이 임박해서야 시간에 쫓기며 쓰는 나를 보면서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하는 나 자신을 향한 질책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논문이 나오기까지 늘 교회 일을 맡아 부교역자의 일을 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을 배려해 주신 최윤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자상한 지도와 우둔한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부족한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신 김명용 교수님과 신옥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끝이 아니라, 공부의 시작으로 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개신교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기도와 권면을 해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돌립니다.

2005년 12월

김 유 현

약 어 표

Inst.,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목 차

| | |
|--------------------------------|----|
| I. 서론 ----- | 1 |
| A.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 1 |
|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3 |
| II. 교회의 본질과 기능 ----- | 6 |
| A. 칼빈의 교회론의 배경과 의의 ----- | 6 |
| B. 역사와 초역사 ----- | 9 |
| C. 교회의 본질과 기능 ----- | 15 |
| 1.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 17 |
|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 20 |
| 3.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 | 24 |
| 4. 참 교회와 거짓교회 ----- | 29 |
| III.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 ----- | 34 |
| A. 국가와 교회의 관계 ----- | 34 |
| B. 국가: 공직자, 법 그리고 국민의 순종 ----- | 38 |
| IV. 교회와 사회의 관계 ----- | 45 |
| A. 역동적인 교회 ----- | 45 |
| B.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 | 49 |

| | |
|-------------|----|
| C. 종말론적인 교회 | 56 |
| V. 결 론 | 62 |
| A. 요약 | 62 |
| B. 평가 | 64 |
| 참고문헌 | 68 |

I. 서론

A. 문제 제기과 연구 목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룩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그의 모든 경험은 언제나 사회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규호는 “인간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 안에서만 혹은 적어도 사회와 더불어서만 생각될 수 있다. 사회를 떠난 인간은 관념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사회를 떠난 존재는 동물이 아니면 천사일런지 몰라도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참으로 인간들 사이에 있어야만 인간이다.”¹⁾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루는 사회는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정형화된 상호작용’이란 무슨 뜻인가? 안계춘에 의하면,

그것은 첫째, 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공유의 기대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집단규범이 존재함을 뜻한다. 셋째, 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각각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넷째, 그것들을 기초해서 성원들은 집단에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동료의식을 갖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²⁾

현 역사 안에 존재 하는 가시적인 교회는 이 ‘정형화된 상호작용’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형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교회는 ‘제도화’되는데, ‘제도화 되었다’(institutionalized)는 말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계속 변한다

1) 이규호, 『사람됨의 뜻』 (서울: 제일문화사, 1996), 149쪽.

2) 안계춘,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9), 185쪽.

하더라도 지속적인 집단들의 안정된 속성”³⁾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인지되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무에게나 인지될 수 있는 실체는 아니더라도 믿음은 행함 속에 드러나고 성령의 활동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드러나기에 교회는 가시적 존재로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정형화된 상호작용’은 멈출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회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만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확장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회의 개인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인 활동과 책임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과제에 집중해 왔다. 이 과제는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독특한 과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건설을 위한 세상적인 과제가 있다.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개념상의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문제와 관련된 과제라는 의미이다.”⁴⁾ 라고 김명용은 주장한다.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 역사와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회의 거룩한 의무이다. 이 두 가지 과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칼빈의 교회론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론이 아니라, 한 사

3) Charles Y. Glock and Rondey Stark,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I1. : Rand McNally, 1965), p. 4. 이원규, 『종교사회학-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39쪽 재인용.

4)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114쪽.

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 안에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론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극 참여하여 해결의 책임을 자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천이며 이 실천의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에 무관심하면 기독교 신앙은 화석화 되며, 반면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사회에 깊숙이 참여하면 할수록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회의가 생긴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교회론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 준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세워졌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일종의 매개자로 존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다가오시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적합한 신학의 장으로 삼아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찾아 실천해야 한다. 에버리 텔레스에 의하면, “세상 속의 교회는 교리나 성례전적 교제와 같은 전통적인 끈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기독교적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오는 형제의식(mutual brotherhood)이다”⁵⁾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를 향한 기독교적 봉사’만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목적, 즉 구원 공동체로 위치는 약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본 논문은 교회의 본질인 구원 공동체로서의 위치와 역

5) Avery Cardinal Dulles, S. J. *Models of Church*, 김기철 옮김, 『교회의 모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112쪽.

할을 칼빈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그 위에 교회의 대 사회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그 기원과 운명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확신한다. 인간이 사회의 결속에서 분리되어 홀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칼빈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기울어지는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또한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진다.”⁶⁾ 라고 말하며 인간의 결속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 생활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의 교제도 파괴했고 그 파괴의 자리에 증오와 폭력이 자리 잡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동체의 특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에, 칼빈의 주된 관심과 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자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 공동체는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된다. 존 H.리스(John. H. Leith)는 칼빈의 이런 관심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점차 자라서 완전해 이르게까지 하는 외적인 조력자 중의 하나인 교회에 이르렀다.”⁷⁾ 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칼빈의 교회론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강요』(1559) 제4권을 중심으로 서술된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가시적-불가시적 교회,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때로는 영향을 받는 관계인 국가와의 관계를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에 기록된 ‘국가의 통치’를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펴,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를 확인코자 한

6)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옮김,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2), 177쪽.

7) 위의 책, 179쪽.

다.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4장에서 역동적인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종말론적인 교회로 칼빈의 교회론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리해 오늘날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올바르게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회의 본질과 기능

A. 칼빈의 교회론의 배경과 의의

오토 베버(Otto. Weber)는 칼빈의 교회론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마르부르크의 유명한 종교사학자 루돌프 오토가 사용한 "초기의 칼빈주의는 고교회적(高教會的, hochkirchlich)이었다"⁸⁾라는 말을 인용한다. '고교회적'(高教會的, hochkirchlich)이라는 말은 가톨릭처럼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전통을 아주 중요시 했다는 뜻이다. 칼빈이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존중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의 변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속의 교회가 새롭게 형성되기를 바랐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계속성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다함이 없는 신실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보존하신다"⁹⁾고 믿었다.

칼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 막강한 영적 권세를 가진 기관이었으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각성을 통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우 변질된 교회상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

8)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옮김,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출판사, 1985) 44쪽.

9) 위의 책, 45쪽

를 떠나 너무나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비판받게 된다.¹⁰⁾ 칼빈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떠나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교황 제도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즉 거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말씀 대신에 거짓말을 섞은 폐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며, 이 조직이 순수한 빛을 꺼버리기도 하고 희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주의 성만찬은 가장 추악한 모독 행위로 대체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음에도 교리는 완전히 매장되고 제거되었다. 공중 집회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¹¹⁾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 상태를 가리켜 칼빈은 “그리스도의 으뜸 되는 대적이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며 무식한 사람들을 위협 한다”¹²⁾라고 말한다. 교회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인데, 오히려 이 예배가 주의 성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신성모독으로 느껴졌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감독직에 필요한 자격을 무시하고, 무자격자를 임명했다. 그 결과 술주정뱅이나 음행자, 상습적인 노름꾼들이 주교로 추천되고 심지어 열 살도 되지 않은 소년을 교황의 허락으로 주교를 만들었다.¹³⁾ 칼빈은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여로보암 때의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짓밟고도 벌을 받지 않으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과 생명 자체가 되는 말씀 선포를 말살해 버리는 무리를 누가 감히 통틀어서 교회라 불렀는가?”¹⁴⁾라고

10) 김재성, “칼뱅의 교회론과 오늘의 교회갱신”, 『어거스틴,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67쪽

1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의 3인 공역, 『기독교 강요』 (1559)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제4권 2장 1항. 이후부터 『기독교 강요』를 Inst., 로 I 권 1장 1항을 I. 1. 1. 로 표기하기로 한다.

12) Inst., IV. 2. 5.

13) Inst., IV. 2. 2.

통탄한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체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재물과 자기 자신의 호화로운 치장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계에 대한 싸움이 계속 되는 것을 보면, 분배가 무질서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든지, 적어도 고대 교회 수입의 절반이 빈민에게 가던 것이 지금은 한 푼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교회법은 명백히 사분지 일을 빈민들에게 배당하고 또 사분지 일은 감독에게 배당해서 손님 대접과 기타 자선 사업에 써야 하는가를 나는 말하지 않는다. 교회와 건물, 기타에 배당된 나머지도 필요한 때에는 빈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도둑질 한 것, 아니 신성모독 행위에서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도 그들은 태연할 수 있는가 묻고자 한다.¹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더 교회의 통치자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제도와 세상 안에 있는 당시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칼빈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을 수행하게 된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장악하여 행사하고 있던 구원의 적용이라는 권세가 모순임을 적발하고 구원은 오직 성령의 주권 하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적용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자유롭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⁵⁾ 칼빈이 수행하고자 한 교회 개혁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혹은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14) Inst., IV. 2. 7.

15) Inst., IV. 5. 16.

16)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21쪽.

것을 드러내는 증표”¹⁷⁾임을 밝히는 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슈트라스부르크의 부쩌(Bucer)를 제외하고는 칼빈 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직적인 성직주의를 깨고 교회의 본질을 찾는 칼빈의 교회론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놀라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보여주어 세계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교회는 이런 현실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초석을 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위기 타개의 방법론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본 논문은 칼빈의 교회론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해 준다고 본다.

B. 역사와 초역사

칼빈의 교회론은 시대의 산물이다. 칼빈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역사의 산물이다.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목적들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다.”¹⁸⁾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은 인간들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항상 유지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이 땅의 역사는 의미와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역

17) 김재성, “갈뱅의 교회론과 오늘의 교회갱신”, 159쪽.

18)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옮김,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45쪽.

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독보적이며 역사적인 특징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역동성이다. 한스 쾅(H. Küng)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바로 교회의 근원 그 자체”¹⁹⁾이다.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다. 한스 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곧 교회의 근원인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수의 생명의 부활 없이는 비단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와 그리스도교의 신앙만이 헛된 것이 아니다(고전15:14-20). 예수의 생명의 부활 없이는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도 무의미하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을 받아 살아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로소 인간 예수의 수수께끼는 풀렸고, 거기서 비로소 교회도 있을 수 있었으며 또 실제로 있었다.²⁰⁾

바로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역동적이게 만든다. 칼빈은 “교회를 정제된 교리적 조항으로 전형화 시킬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역동성으로 보아야 한다”²¹⁾고 말한다. 김재성은 칼빈의 교회관의 중요한 부분은 “매일 일어나는 이 세상 역사의 분요한 소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²²⁾이라고 주장한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구별된 무균 상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파견된 그러면서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현실적인 공동체이다. 교회에 주어진 거룩함은 교회를 자동적으로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

19) Hans Küng, *Was ist Kirche?*, 이흥근 옮김,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 출판사, 1995), 59쪽

20) 한스 쾅, 『교회란 무엇인가』, 60쪽.

21)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126:2, 김재성 “칼뱅의 교회론과 오늘의 교회 갱신,” 『어거스틴,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178쪽에서 재인용.

22) 김재성 “칼뱅의 교회론과 오늘의 교회갱신,” 179쪽.

왔으나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칼빈은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한다. 칼빈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과멸의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세상에 어떤 재앙을 보내실 때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범한 바 죄과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벌하시는 심판주로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그런 타격을 견뎌 내는 사람들을 위한 것 뿐이겠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운 보수하심을 일반적으로 보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할 줄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며, 그의 분노를 더 이상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요약하건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징벌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된다.²³⁾

칼빈은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 존. H. 리스(John H. Leith)에 따르면 “칼빈에게 있어서 역사는 신앙지식의 타당하고도 중요한 원천이며,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역사 과정에 대한 긍정이다”²⁴⁾라고 평가한다. 존. H. 리스는 칼빈의 ‘역사 과정에 대한 긍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한다. “첫째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며, 둘째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셋째로,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²⁵⁾ 이런 칼빈의 역사 이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23)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옮김,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2), 161쪽. 재인용

24) 위의 책 162쪽.

근본적으로 실재적이라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 자체는 합리성만큼 진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자기 시대의 교회를 본 사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칼빈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전이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의 인식은 인간 쪽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계시된 화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신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이 생긴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다.²⁵⁾

타락한 인간이 활동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칼빈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즉 타락한 인간은 중보자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속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확립하고, 인간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자녀

25) 존. H .리스, 『칼빈의 삶과 신학』, 159-169쪽.

26) Inst., I. 2. 1.

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며, 그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되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야 했음을 보여 주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끄럽게 만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화해의 보증, 즉 약속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는 인간의 것을 취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의 안에서 그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결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²⁷⁾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땅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죽음에 복종시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어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의 힘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과 투쟁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는 사실 잠재적인 은혜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를 모르는 죄인은 자동적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잠재적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참으로 신앙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첨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위에 비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멀리 숨어 있었을 것이다.”²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며 그의 수반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27) Inst., II. 12. 2.

28) Inst., III. 2. 1.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최윤배에 의하면, “성령론적으로 정향된”²⁹⁾ 지상적인 삶의 시작이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성령을 필요로 하지만, 그가 성취하신 구원과 은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 즉 그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령세례를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할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성취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³⁰⁾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이끄신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칼빈에 의하면, “성령은 말하자면, 띠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그분 자신을 효과적으로 연합하신다.”³¹⁾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주장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지거나 말하여지는 모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오직 한 분 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소유한다.”³²⁾ 칼빈은 우리가 그분 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중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는 우리가 그분의 무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늘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거기서 아버지를 분명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

29)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연구』 창간호 (2004. 1), 72쪽

30) 위의 책, 79쪽

31) Inst., III. 1. 1.

32) Inst., III. 11. 7.

이다. 둘째는 우리가 그의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어서 생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³³⁾

칼빈에게 있어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장이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며,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장이라면, 초역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따라서 칼빈의 교회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시의 장인 역사(歷史)와 성령의 역사(役事)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자리인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현재화 된다. 그 현재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다. 그러므로 역사(歷史) 안에 있는 교회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役事) 내지 활동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심으로써 세상 안에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인간 세계의 성화를 잠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유용하게 만드시는 지속적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교회가 생성하고 존재한다.

C. 교회의 본질과 기능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늘 사회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 열심을 내는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 초

33) Inst., III. 11. 17.

석이 될 것이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분명한 교회 정체성을 확립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공동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신조(381년)에서 정리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교회론의 기초로 삼았다. 이 네 가지 속성들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바른 교회를 세운 개신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도 고백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에 반기를 들며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김재성은 “고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교회의 본질을 충분하게 다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회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항들로 보면 된다”³⁴⁾ 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전혀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의 교회론을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재성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 제4권은 제1장 1항부터 4항까지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다룬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를 다루고 난 후, 17항에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설명한다. 그리고 죄의 용서 등과 같은 교회의 권세 문제를 제8항까지 상세하게 다루었다. 초반은 대부분 세 가지 속성을 구체적이며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잘못 적용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철저히 해부한다. ‘사도성’의 문제는 제3장 6항에서 제8항 전체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는데, 진정한 사도성과 보편성을 해치는 배타적 교황권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³⁵⁾

34) 김재성, “교회의 본질과 속성”, 『신학정론』, 제22권 2호, 통권 43집,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512쪽.

35) 위의 책, 512쪽.

1.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기독교강요』(1559)제4권 서두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富)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³⁶⁾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부(富)’를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무지함과 나태와 약함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능력에 적당한 방법을 취하셔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길을 지시”³⁷⁾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는데,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부터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스트라스부르크의 목회 경험을 거친 후 1542년 제2차 종교개혁기간에 접어든 이후였다.³⁸⁾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한 것은 이미 키프리아누스와 어거스틴에게서 나타난다. 키프리아누스는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³⁹⁾고 말했다. 어거스틴

36) Inst., IV. 1. 1.

37) Inst., IV. 1. 1.

38)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459쪽.

39) Cyprian, *On the Unity of the Catholic Church*, vi(LCC V, 127-8). 이양호, 『칼빈

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머니로서”⁴⁰⁾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상을 받아들여 칼빈은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마22:30) 보호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⁴¹⁾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연약한 인간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⁴²⁾ 여기에 칼빈의 교회관의 중요한 명제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칼빈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양호에 의하면, “칼빈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구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⁴³⁾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으며 양육하고 평생 인도한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관과는 다르게 그의 『기독교강요』 4권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다. 칼빈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1530) 제5조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07쪽, 재인용.

40) Augustine, Ps. LXXXVIII. ii. 14,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Tournhout: Typographi Brepols, 1956), Vol. XXXIX, p. 1244, 1. 33-3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07쪽, 재인용.

41) Inst., IV. 1. 4.

42) Inst., IV. 1. 4.

43)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208쪽.

우셨고, 그들을 권위로 입히시며, 믿음과 질서의 거룩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중단시키지 않으신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례전을 정하셨다. 이로 인하여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확고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이라는 것을 느낀다.⁴⁴⁾

교회가 신앙을 유지하며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구원하는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 따라서 칼빈은 “교회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⁴⁵⁾라고 선언하기도 한다. 여기서 칼빈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설교와 그것을 담당 한 사역자들의 역할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질 때 실제로 믿음이 생기고 성장 시킨다는 점을 칼빈은 간과하지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10:17)는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복음만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신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전파에 의해서 나타난다.⁴⁶⁾ 칼빈은 복음 전파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날에 거룩한 회중이 성소(聖所)앞에 보이기를 원하셨으며, 거기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일치를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성전을 하나님이 ‘설 곳’(시132:14), 지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사57:15)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곳이라고 한다(시80:1).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다만 하늘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 존경과 사랑과 경의와 위엄을 얻게 하려는 뜻이다.⁴⁷⁾

44) Inst., IV. 1. 1.

45) Inst., IV. 1. 10.

46) Inst., IV. 1. 5.

47) Inst., IV. 1. 5.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존경과 사랑과 경의와 위엄을 얻는 일인데, 이 무한히 귀한 보물을 전파하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같이 들을 때 받을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인 해석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⁴⁸⁾라고 말한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빈의 교회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 부르심’⁴⁹⁾으로 보았고, 그 기초 위에 교회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전1:13 참조)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엡1:22-23 참조)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4:16 참조).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 같이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⁵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통’이다. 사도 신경의 이 조항은 어느 정도 외면적인 교회에 적용이 된다. 이 구절은 교회

48) Inst., IV. 1. 5.

49) Inst., IV. 1. 2.

50) Inst., IV. 1. 2.

가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칼빈은 '성도의 교통'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설명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뉜다는 원칙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상이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각 사람의 사유 재산이 허락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⁵¹⁾

여기에서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엇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 없다"⁵²⁾라고 한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봉사에 있어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개인의 파괴적인 주권 행사가 제거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⁵³⁾ '성도의 교통'이 깨어지는 교회는 단지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손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내적이고 본질적인 뜻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칼빈의 견해로는,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점잖게, 질서 있게 행하여 공적으로 덕을 세워야 할 책임이

51) Inst., IV. 1. 3.

52) Inst., IV. 1. 3.

53) W.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88쪽.

있다.”⁵⁴⁾ 그 책임을 위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의 삶과 그 행위 안에서 기독교 교회의 통일성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도록 고안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며,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칼빈이 말하는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인지 아니면 조직으로서의 교회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니젤은 칼빈이 이해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활하신 자가 사람을 자기의 소유라고 요구한다. 그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열 안에서 모두 한 무리에 속하여 각자는 타인의 도움을 얻어 인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피차에 봉사와 도움을 주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상은 교회가 신도의 어머니라는 견해와 필수적으로 결합 된다⁵⁵⁾

위와 같은 유기체로서의 칼빈의 교회 이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⁵⁶⁾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실재(實在)로서의 교회를 간과 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더불어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토 베버는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심한 교회다.”⁵⁷⁾ 라고 까지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직분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유지하신다. 하나님은 친히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러면 칼빈은 왜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는 것일까? 아래의 인용된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빈은 교회 안의 직분을 통해 겸손과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4) Inst., IV. 1. 12.

55) 니이젤, 『칼빈의 신학』, 187쪽.

56) 현요한, “칼뱅의 교회론: 성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6), 19쪽.

57)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65쪽.

성령께서는 직분자들을 겸손하도록 훈련시키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은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이 된다.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즉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경건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결합해서 상호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끈이 있다.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제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입에서 공통된 교훈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한 끈으로 묶으시고 이것이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 있는 수단이라고 예견 하셨다.⁵⁸⁾

칼빈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교리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끝으로 교사라고 부른다. 이들 가운데 마지막 둘은 교회 안에서 일상적인 주체이다. 주님은 그의 왕국의 시작에서 처음의 세 직책을 세웠으며, 때때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들을 일으키신다.”⁵⁹⁾ 여기서 선지자의 역할은 오늘의 교사가 담당하고, 사도와 전도자의 역할은 오늘날에는 목사가 하는 것으로 칼빈은 생각했고, 목사는 사도직을 물려받아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한다.⁶⁰⁾

그러면 같은 말씀에 관한 사역인 목사와 교사는 어떻게 다른가? 교사들은 권징, 성례집행, 훈계, 권면을 맡지 않고, 다만 성서해석을 맡는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온전하고 건전한 교리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⁶¹⁾ 이런 구별은

58) Inst., IV. 3. 1.

59) Inst., IV. 3. 4.

60) Inst., IV. 3. 4.

로마 가톨릭 교회식의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로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초대교회의 복귀를 의미한다. 각 사람이 받은 직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구다. 칼빈의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성령의 은사이며, 주의 일꾼으로서 기능한다는 전제를 가졌고 교회의 여러 직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은사면에서는 동등하며 기능에 있어서만 구별될 뿐이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한다. 더불어서 칼빈은 몸의 지체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몸을 살리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 역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성경적인 표현은 칼빈의 교회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불가시적 교회와 사악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시적 교회로 구별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의 지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는 일치를 강조한다.

3.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 붙여진 프랑스 왕 「프랑소아 I 세에게 바치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저들의 교회관(로마 가톨릭교회)을 비판한다, 첫째는, 저들의 교회의 형태는 항상 육안으로 보이고 관찰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요. 둘째는, 이 형태가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보좌와 그 밑에

61) Inst., IV. 3. 4.

종속하는 계층 질서적 성직체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반대로 우리는 교회란 가시적 외형이 없어도 실존할 수 있으며 이 외형은 저들이 바보처럼 찬양하는 외적인 훌륭함에 국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교회는 두 가지 표지(標指)를 갖는다. 즉 하나님의 말 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과 성례전을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다.⁶²⁾

칼빈은 한 교회의 두 가지 측면, 즉 불가시적 측면과 가시적 측면을 말한다. 칼빈은 종교개혁 초기에는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으로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후기에는 스트라스부르와 주네브의 목회 경험을 통해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론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⁶³⁾ 루터의 경우는 불가시적-가시적 분별이 없이 앞서 언급한 교회의 두 가지 표지(標指),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성도의 교제를 알맹이로 하는 교회론⁶⁴⁾이라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⁶⁵⁾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를 “천지 창조 이후 살아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죽

62) Inst., I.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63) 최윤배, “요한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90쪽.

64)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 457쪽.

65) Inst., IV. 1. 7.

은 자 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이해하고, 가시적 교회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들”⁶⁶⁾로 이해한다.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관점에서, 가시적 교회는 인간의 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야심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또 중상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고 아주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간 있을 수 있다.⁶⁷⁾ 이들이 일시적으로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재판 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기 불가능하거나 강력한 규율이 항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⁶⁸⁾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 하도록 하고, 또한 권징을 통해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위선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에게서 두드러진 권징은 교회의 가르침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성화에 이르려는 신자들의 노력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행실로 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기독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구분하고, 악한 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출교를 당하여 치욕을 겪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또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을 교정하고자 하는데 있다.”⁶⁹⁾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권징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육적

66) 최윤배, “황정욱 교수님의 ‘갈뎡과 오늘의 개혁교회-교회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2”, 『어거스틴, 루터, 갈뎡,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 2004). 159쪽.

67) Inst., IV. 1. 7.

68) 황정욱, “갈뎡과 오늘의 개혁교회-교회론을 중심으로,” 『어거스틴, 루터, 갈뎡,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23쪽.

인 것이었다. 권징은 어디까지나 목회적 치유책이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칼빈은 권징에 있어서는 죄인을 부드러움으로써 다룰 것을 권면한다.⁷⁰⁾ 그렇다면 권징의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현재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교회는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의미에서 거룩하다.⁷¹⁾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이 곧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징은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시적 교회에서 권징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의 성화를 위한 노력의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두 가지 표지, 즉 말씀과 성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판단’⁷²⁾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형기 교수는 칼빈은 “루터의 이신칭의로만 만족하지 않고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⁷³⁾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교회란 매일 같이 전진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교회는 매일 매일 성장하지만 거룩의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⁷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구분은 단순히 교회가 두 개로 실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로만 이루어진 불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이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칼빈은 오직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고, 그분을

69) Inst., IV. 12. 5.

70) Inst., IV. 12. 9.

71) Inst., IV. 1. 17.

72) Inst., IV. 1. 8.

73)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25쪽.

74) Inst., IV. 1. 17.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오직 하나만의 교회를 교회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은 불가시적 교회를 기준 삼아 가시적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회의 가시적 모습은 그 불가시성을 드러내 주고, 교회의 불가시성은 인간이 교회의 경계를 정할 수 없음과 또 하나님께만 알려질 수 있는 교회의 실체를 파괴 할 수 없음에 기초를 둔다. 현요한은 칼빈의 가시적-불가시적 교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결국 칼빈의 가시적-불가시적 교회론에 있어서 가시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를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개혁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신앙의 출생과 성장의 터전으로서의 역할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가시적-불가시적 교회를 논한다.⁷⁵⁾

그러나 칼빈의 가시적 교회-불가시적 교회의 구분은 그 배후의 관념에 보이는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구별한 회랍의 철학사상이 존재하고 있기에, 현대에 와서 칼빈의 가시적 교회-불가시적 교회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적⁷⁶⁾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⁷⁷⁾ 김명용에 의하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플라톤 사상 때문에 교회의 세상적, 사회 윤리적, 사회 정치적 실존이 하찮은 것과 비본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⁷⁸⁾ 이런 칼빈의 가

75) 현요한, “갈뱅의 교회론: 성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30쪽

76) Curt Friedlein, *Geschichte der Philophie* 강영계 옮김, 『서양철학사』, (서울: 서광사, 1985), 113쪽-115쪽: 플라톤 철학의 주요 개념은 이데아론이다.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형이다. 이데아는 한 유(類)에 속하는 모든 사물들의 보편적 특징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자신 안에 지닌다. 감각적 사물은 변화하며 소멸한다. 감각적 사물은 아무런 참다운 존재자도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 존재만을 소유한다.

77)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18쪽.

78) 위의 책, 19쪽.

시적 교회-불가시적 교회의 의의와 비판을 동시에 접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김명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구별은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활동은 가건적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은 두 개의 교회라기보다는 동일한 하나의 교회의 두 양태로 이해해야 한다. 즉 보이는 교회는 현존하는 구체적 교회를 의미하나 불가시적 교회는 교회의 이상적 모습 혹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럴 때 불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은 보이는 구체적 교회의 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가시적 교회 속에 투영되어 있는 참 교회라는 개념은 부패한 현실적 교회에 안주할 수 없다는 강한 개혁 의지가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⁷⁹⁾

결국 칼빈의 가시적-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한 것은 두 개의 교회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시적 교회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정체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온 개념이 불가시적 교회, 즉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보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다.

4. 참 교회와 거짓교회

칼빈에게 있어서 가시적-불가시적 교회의 구분은 가시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참 교회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칼빈은 참 교회의 징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79) 위의 책, 21쪽.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엡2:20 참조)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고 하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다.⁸⁰⁾

위와 같은 것을 통해 교회가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은혜의 수단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이 헛되지 않고, 성례가 효과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으려면,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거쳐 모든 오류를 피해야만 한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교회적인 권징을 행해야 한다.”⁸¹⁾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교회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기에, 교회의 가르침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성화에 이르려는 신자들의 노력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칼빈은 참 교회의 표지로서 성례를 강조하는데, 칼빈은 성례를 “믿음을 지속시키고 강건케 하기 위한 복음의 설교와 매우 가깝고, 비슷한 수단이다”⁸²⁾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복음과 성례를 동등한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칼빈은 자신의 전체 교리를 통해서 성례의 부차적이고 보충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며, 정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성례를 강조하는 것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례에 관한 두 가지 정의를 연속해서 다룬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80) Inst., IV. 1. 9.

81) François Wendel, *Calvin: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김재성 옮김,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362쪽

82) Inst., IV. 14. 1.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성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든지 간에 그 의미는 성례란 거룩한 것의 가시적 표징, 혹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적 형태라는 어거스틴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⁸³⁾

칼빈에 따르면, 성례의 존재는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성례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이다. 성례에 참여 했다고 구원의 보장을 얻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맡겨져 있고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성례란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증된 것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시고는 어떠한 약속도 인간에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의 차이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전자가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그분께서 이미 오셔서 베푸시고, 계시하신 바를 증거하고 가르친다는 점이다.⁸⁴⁾

이렇게 칼빈은 처음부터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례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오직 그것들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세례와 성찬과

83) Inst., IV. 14. 1.

84) Inst., IV. 14. 20.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성찬은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한다. 물은 씻음을, 피는 보속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말과 같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요일5:6) 곧 씻으며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⁸⁵⁾

그런데 세례와 성찬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관계되게 하고 확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이시다. 칼빈은 이 숭고한 신비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올 때(요19:34)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제시되었다”⁸⁶⁾라고 말한다. 물과 피 가운데서 우리는 죄 사함과 구속의 증거를 받는다. 그리고 성령은 성례의 근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여 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그 증거를 믿게 하며 또한 그 증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이처럼 성령은 성례를 받아들이고 성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목적은 단순히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교회의 표징들’의 목적은 영원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데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성례를 통해서 비로소 성도들의 믿음을 확증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⁸⁷⁾ 성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성례는 성도들을 자극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주며, 사랑과 평안과

85) Inst., IV. 14. 22.

86) Inst., IV. 14. 22.

87) Inst., IV. 14. 7.

일치에 도달하게 하는 예식이다.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Ⅲ.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

A. 국가와 교회의 관계

『기독교강요』 제4권 마지막 20장의 제목은 ‘국가 통치’다. 이 주제가 ‘신앙의 영적 교훈’에서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굳이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칼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토의해 온 영적인 신앙론과 이 문제는 성질이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미친 야만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도를 전복시키려고 날뛰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군주의 권력을 과장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지배에 대립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⁸⁸⁾

위의 인용문에서 인용된 ‘미친 야만인들’은 재세례파 집단들로서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영적 중생 혹은 각성에서 체험되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다고 보았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유아세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신앙을 충분히 의식하고 세례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재세례파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며 진정한 신앙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종교 문제에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재세례파의 불일치주의는 대단히 혁명적이고 심지어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른 한 편에서는 ‘군주에게 아첨하는 자’로서 16세기의 마키아벨리를 필두로 하여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88) Inst., IV. 20. 1.

경향이 대두되고 있었기에 칼빈은 "이 두 가지 해독을 다 억제하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도 사라질 것"⁸⁹⁾이라는 점에서 정치를 신앙의 문제로 이해하고 출발한다.

그렇다면 칼빈이 국가 통치를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지만, 그러는 동안 지상에서 나그네로 지낸다.⁹⁰⁾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로서 국가 통치의 도움들을 필요로 한다.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을 칼빈은 다음과 기술한다.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⁹¹⁾

신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상의 도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상의 도움들, 즉 국가 통치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칼빈은 "자신들의 인간성을 제거하는 사람들"⁹²⁾이라고 비판한다.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밥과 물과 태양과 공기처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사실상 그것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지상적 필요에 국한되지 않고 우상숭배와 무신론을 제재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서로 무해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서 단정하고 온건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지닌다."⁹³⁾ 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칼빈은 더 강조 한다.

89) Inst., IV. 20. 1.

90) Inst., IV. 20. 2.

91) Inst., IV. 20. 2.

92) Inst., IV. 20. 2.

93) Inst., IV. 20. 3.

칼빈이 신앙생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곧 교회와 국가의 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국가 통치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국가의 통치의 혼동을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문제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우리가 앞서서 한 구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혼동은 피해야 한다. 복음은 자유를 약속하며 이 자유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왕이나 집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우러러 본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위에 어떤 권력이 군림하는 동안은 자유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 세계를 새로운 형태로 개조해서, 법원이나 법률이나 집권자나 자유를 속박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구별하며 덧없는 현세와 영원한 내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다.⁹⁴⁾

칼빈은 국가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서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제력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한 것은 국가와 교회의 결탁이 아니라, 칼빈의 인간 이해를 근거로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말한다.⁹⁵⁾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남아 자취(notas)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자취가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⁹⁶⁾ 라고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인간이 보유하고 있었던 신의

77) Inst., IV. 20. 1.

95) Inst., I. 15. 4.

96) Inst., II. 2. 17.

선물들과 능력들, 예를 들어 이성과 의지 같은 것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역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의 선물들과 능력들’의 역기능은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서 끊임없는 무질서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에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남아 있는 육적인 정욕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죄를 제어해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면 사회의 안전과 평화는 유지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날이 오기까지 외부적인 강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 시민적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다. 칼빈은 세속적인 지배권의 가치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⁹⁷⁾에서 찾으며, “정권은 하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⁹⁸⁾고 주장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죄에 대한 외부적인 강제가 아니라 죄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인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회개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스스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죄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죄인 내부의 마음을 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국가나 이 세상의 질서를 떠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또는 우리가 어느 나라 법률 하에서 살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는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⁹⁹⁾ 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국가에 의해 주어질 수 없고, 국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통치

97) Inst., IV. 20. 4.

98) Inst., IV. 20. 4.

99) Inst., IV. 20. 1.

영역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통치와 영적 통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칼빈은 그 ‘다름’을 ‘비교 우위’로 설명하지 않는다. 칼빈은 “이 두 질서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국가 통치를 그 성질상 부패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¹⁰⁰⁾ 라고 말하고, “인간 사회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참으로 그 위치는 훨씬 더 귀중하다”¹⁰¹⁾ 고 언급하면서 두 질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다름’의 차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연결시킨다.

B. 국가: 공직자, 법 그리고 국민의 순종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단순히 영적인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역사, 사회, 인간 공동체 일반 등 인류역사 전체를 포괄한다. 칼빈은 공직자, 법, 국민의 순종이 국가를 구축한다고 보았다. 먼저 공직자는 “하나님에 의해 신적인 정의의 봉사자로 제정”¹⁰²⁾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¹⁰³⁾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국가의 공직자들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국민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를 칼빈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2)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국가의 공직자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여하신 분의 의지에 제한시켜야 한다. 공직자

100) Inst., IV. 20. 2.

101) Inst., IV. 20. 3.

102) Inst., IV. 20. 6.

103) Inst., IV, 20, 6.

들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범죄자들을 재판하고, 군비를 갖추며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심지어는 전쟁을 수행할 권리까지 갖는다.

칼빈은 국가의 공직자의 정당성과 그들의 직무는 법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보았다. 칼빈은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에서 공직자 다음은 법이다. 법은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이며 플라톤이나 키케로 말한 모든 공화정들의 영혼이다. 법이 없다면 관리들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법들은 관리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은 말 없는 관리이고 관리는 살아 있는 법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¹⁰⁴⁾

공직자가 ‘하나님에 의해 신적인 정의의 봉사자로 제정’되었기에 법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수립된 것이다. 그 결과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법은 하나의 법, 즉 하나님의 율법이다. 칼빈은 율법을 도덕법, 제사법, 사법으로 구분한다. 도덕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한 애정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활을 맞추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된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⁵⁾ 또한 제사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의 교리로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장성할 때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 동안의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지혜를 완전하게 나타내며, 그 때문에 표상으로 예표하신 일들

104) Inst., IV. 20. 14.

105) Inst., IV. 20. 15.

의 실상을 보이려고 하셨다.”¹⁰⁶⁾ 그리고 사법은 “국가의 통치를 위하여 주신 것이었으며, 그들이 결합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공평과 정의의 형식들을 주신 것이다.”¹⁰⁷⁾

이러한 기초 위에서 칼빈은 국가의 법에 있어서 그 법이 법이 되게 하는 원리를 공정성으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역설한다.

우리가 모든 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할 때에 내가 한 말의 뜻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헌법과 그 헌법의 근거가 되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모든 법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이 동일한 목적이 모든 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지배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이 공정성이라는 목표를 동등하게 추구한다면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¹⁰⁸⁾

이 공정성이 있기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증거 등은 어느 나라이건 처벌을 가하는 죄목들로서 양심의 소리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모두 정죄한다. 칼빈은 법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칼 혹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¹⁰⁹⁾고 말하며, “공정성을 근거로 한 전쟁도 감행해야 한다.”¹¹⁰⁾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칼빈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가나 교회나 바로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눅10:27)의 이중적 사랑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하는 국가를 구축하는 세 번째 요소는 국민의 순종이

106) Inst., IV. 20. 15.

107) Inst., IV. 20. 15.

108) Inst., IV. 20. 16.

109) Inst., IV, 20. 10.

110) Inst., IV, 20. 11.

다. 칼빈은 공직자를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하며 공직자를 존경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가 공정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운 법을 따라야 하고 공직자에게 순응해야 한다. 더 더욱 칼빈은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불의한 집권자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책을 다하는 군주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든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비록 군주로서의 직책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권위에 또한 복종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의 진정한 표본의 증거이며, 불의하고 무능한 지배자들은 국민의 사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고, 지배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력에 주신 거룩한 위엄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신다.¹¹¹⁾

이처럼 칼빈은 “불의한 지배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국민의 사악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악을 벌하시는 도구로서의 “불의한 지배자들”의 권세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그런 순종은 운명인가?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병폐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다만 주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을 뿐이다”¹¹²⁾라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들의 불의함을 가만 두시지 않으시고 해결하신다고 역설한다.

어떤 때는 종들 가운데서 공공연한 복수자를 일으키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며 부당한 압박을 받는 그의 백성을 참혹한 불행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어떤 때는 다른 의도를 품고 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열광을 인도하셔서 이 목

111) Inst., IV. 20. 25.

112) Inst., IV. 20. 29.

적을 달성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하셨고(출3:7-10). 웃니엘을 시켜 수리아 왕 구산의 폭력에서 구하셨고(삿3:9) 다른 왕들이나 사사들을 통하여 그 밖의 압제에서 구출하셨다¹¹³⁾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은 세상 역사의 변혁을 인정하는데 그 역사의 변혁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서, 모든 영역에 관여하신다. 칼빈은 공직자들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방해 할 수 없다고 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그의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부분인 국가론을 결론 맺는다.

그러나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5:29)는 칙령을 선포했으므로, 우리는 경건을 버리기 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자. 바울은 또 다른 자극을 주어 우리를 격려한다. 이는 곧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¹¹⁴⁾

여기에서 ‘공직자들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칼빈의 말은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은 하지만,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저해하는 경우 국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칼빈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공직자들의 권위에도 항상 한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

113) Inst., IV. 20. 30.

114) Inst., IV. 20. 32.

다. 실로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런 순종으로 모든 왕들의 욕망도 그분의 뜻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왕들의 모든 명령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왕들의 모든 권력이 그분의 위엄 앞에 굴복해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¹¹⁵⁾

칼빈은 국가의 존재 근거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직자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봉사자,” “신적인 진리의 도구”라고 부를 정도로 칼빈의 국가관은 적극적이다.¹¹⁶⁾ 칼빈의 사회 혹은 국가 윤리는 양심법에 기초한 실정법의 사용과 국민의 순종에도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이오갑은 칼빈의 국가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상호협력과 의존성을 강조한다. 교회는 ‘영적’인 혹은 ‘내적인’ 통치, 국가는 ‘지상적’인 혹은 ‘육적’인 통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영역과 통치원리를 갖는다. 그래서 그 둘은 혼동되어서도 안 되고, 피차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반면에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올바른 예배와 교리, 종교가 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와 국가는 한 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뤄나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칼빈은 교회와 국가간의 상호독립성을 근간으로 한 역동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그래서 안정되고 우호적인 국가 체제 안에서 교회가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¹¹⁷⁾

115) Inst., IV. 20. 32.

116)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 515쪽.

117) 이오갑, “칼빈의 국가론”, 『칼빈연구』, 창간호, (2004.1) : 244쪽.

칼빈이 바라본 국가는 전문적인 정치철학이나 정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칼빈은 국가의 통치를 교회와 다른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권력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국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근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칼빈의 국가론은 기독교적인 국가체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두드러진다. 칼빈은 대체로 국가와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교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와 정치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과 활로를 통해 일관되게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도모했다. 칼빈의 이와 같은 사고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나온다.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에 의하면, “이 근본원리는 구원론적으로 이신칭의가 아니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주론적으로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모든 영역의 전체 우주를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¹¹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날이 오기까지 국가는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야 한다.

118)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김지찬 옮김,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98쪽.

IV.교회와 사회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부여하여 그 말씀이 다시 창조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낡은 전통을 깨뜨린 사람은 마틴 루터였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예배와 생활양식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생활과 공동체 삶을 규정짓는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은 칼빈이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 안에서 인간에게 많은 요구를 하며 정치적, 세속적인 일에서도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운동이었고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갱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교회의 분열과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여러 사례들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교회로서의 기능하기보다는 역기능을 낳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증오를 불러 왔다. 한국 교회의 경우 과거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보여준 여러 역할로 인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로부터의 몰인정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선교적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가 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앞서 논한 칼빈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A. 역동적인 교회

사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한다.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중의 하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요구한다. 그 역

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양창삼은 교회의 배타주의, 폐쇄성, 이기적 태도, 상업주의, 목회자의 자격과 자질을 지적하고 있다.¹¹⁹⁾ 그러나 이런 세상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의 본질을 비판하기 보다는 보이는 교회의 현상에 대한 비판이다. 교회의 변질된 현상에 대한 비판은 현상에 대한 수정과 개혁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으로 교회는 먼저 들끓는 사회의 비판에 대하여 귀 기울이면서 교회의 본질을 더욱 확고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칼빈이 교회론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라 하더라도 그 핵심은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다.¹²⁰⁾ 이 근본 위에 교회는 역동적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역동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 교리로 구원론의 기초로 삼는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 막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가르쳐 왔으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 구원의 문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 칼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보증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조차도 선택의 보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119) 양창삼, “교회의 대사회이미지, 이대로 좋은가,” 『목회와 신학』 통권169호 (2003.7): 71쪽-73쪽.

120) Inst., IV. 9. 9.

는 우리의 선택을 비추어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한다.¹²¹⁾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어둠함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역동적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교회는 바로 이 사실 위에 세워진다.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며 그 토대 위에 대 사회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숙한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 칼빈이 제시한 교회의 존재목적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축복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증대시키며 그 목표에 이르게 하려면 무지하고 게으른 우리들에게는 외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를 첨가하셨다. 또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¹²²⁾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관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정체된 교리적 조항으로 정형화된 기관이 아니라, 구체적 현장인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기관이다. 즉 인간 구원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처한 현실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애굽 땅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적 재미와 육망적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에 처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는 물질과 정보,

121) Inst., III. 24. 5.

122) Inst., IV. 1. 1.

오락과 향락이 극을 달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광식은 이런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비친 교회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성령의 역사가 미약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지상의 교회들은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도전에 너무도 무기력해 있다. 이제 세상을 뒤바꿀 강력한 영적인 힘은 물론 자기의 구별된 거룩함을 방어할 미력도 부족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교회는 영적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완전히 수세에 몰린 느낌이다. 때때로 교회의 외적인 번창과 화려함과는 무관하게 패색의 분위기가 짙어보인다. 교회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부유한 세상이 제공하는 그 화려함을 향유하면서 자기 보존과 자기 만족, 자기 축제에 그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는 교체와 찬양, ‘더불어 삶’의 코이노니아(koinonia)는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말씀의 선포와 교리의 제시 같은 케리그마와 또 희생과 섬김의 디아코니아(diakonia)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¹²³⁾

위와 같은 비판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교회의 외적인 번창과 화려함에 비해 교회가 무기력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 갈 방향은 단지 교회가 사회적인 조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우선적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비록 대 사회적인 관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역동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역동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려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일을 통해 발생된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교회를 버렸기에 이단이라고 하는 비판

123) 전광식, “한국교회의 세속화 이대로는 안된다,” 『목회와 신학』 통권169호 (2003.7): 82쪽.

에 대해 교회를 버린 단 하나의 이유를 그 교회에서 진리가 설교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²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참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영원한 가치를 영원토록 붙잡는 것이 참된 교회이며 이 본질을 간직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쫓겨났고,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이 점을 양보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¹²⁵⁾

B.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칼빈의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 또 그는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를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그대신 우리는 더 고상한 데로 나아가야 한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연합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안에 자기 형상을 새겨 넣으셨고 하나의 공통된 본성을 주셨다. 그것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 이웃을 위하여 주는 일에 자기만은 예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깎아 내어서 더 이상 사람이길 바라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 한 가난하고 멸시받으며

124) Inst., IV. 2. 6.

125) Inst., IV. 2. 6.

기진해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짐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거기에 어떤 무어인이나 야만인이 오더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세워 주신 자연의 질서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⁶⁾

위와 같은 칼빈의 인간 이해의 근원은 참 신앙에 있다. 이 신앙에 근거하여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이며 목표로 인식한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가지며, 그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모이며 흠어지고, 보호받고 훈련받음으로 유지된다. 칼빈은 교회를 마치 머리에 의존하는 하나의 신체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김옥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체로 인식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들이 서로 묶여 있음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의 공동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를 섬기심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순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어주는 성령의 끈이다. 인간의 편으로부터 그것은 신앙인바, 이 신앙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¹²⁷⁾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말할 때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으

126)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198쪽.

127) 김옥순, “칼빈의 디아코니아”. 『칼빈연구』 창간호, (2004. 1), 196쪽.

로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를 섬기심을 의미하는 성육신에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내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의 교회론은 이론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았던 제네바시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개념도 칼빈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1537년 1월 제네바 시의 소의회와 2백인 회의를 통해 교회의 정치기구를 채택한 후 「신앙요리문답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배우기로서 약하고 아이들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제네바 시정부와의 충돌로 칼빈은 제네바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제네바는 날로 부패하여 갔고 1541년 9월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들어가 1564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 동안 개혁운동가로서의 일생을 마쳤다. 칼빈은 목사 5인과 장로 12인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규율과 시민의 도덕을 관리하였다. 평의회는 규율을 정하여 제네바 시민으로 하여금 음주와 무도, 사치 외설, 저속한 노래 등을 금했다¹²⁸⁾.

그런데 칼빈이 평의회를 조직하면서까지 교회와 시민의 도덕을 관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오갑은 그 이유를 “각자의 기능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시민들을 섬기는 정치질서와 교회의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있다”¹²⁹⁾고 설명한다. 즉 국가는 한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악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교회는 이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이 복종은 절대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를 위한 복종이다. 또한 복종은 우리 마음의 선한 증언으로, 우리의 교만이나 소유욕이나 어떠한 다른 욕구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진솔한 하나님 경외로부터 교회의 갱신을 위한 열정을 가지

12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62-269쪽.

129) 이오갑, “칼빈의 국가론”. 『칼빈연구』 창간호 (2004. 1), 231쪽.

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로 받아들여야만 한다.¹³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현장으로 드러나는데, 김옥순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디아코니아적 구조로 이해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섬김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심적 섬김은 수직적 위계질서로써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함에 근거하는 동등성의 구조를 가지는 바, 그것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는 교회의 다양한 섬김의 일들을 에베소서4:11-13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인의 공동체성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섬김을 통한 동등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있어서 교회의 직무가 섬김을 통한 은사들의 동등한 비중의 활용으로 이해될 때에 교회의 구조는 그 의미에 있어서 디아코니아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¹³¹⁾

그렇다면 칼빈의 교회론의 바탕으로 한 교회는 어떻게 사회를 섬길 것인가? 칼빈은 인간의 공동체적 특성을 먼저 강조한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기울어지는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한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진다.”¹³²⁾ 칼빈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자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부름을 입고 나온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현장이다.¹³³⁾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은 전체적으로 더 넓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구호와 봉사의 과제를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또 문화 활동을 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런 교회의 활동들은 교회에

130) Inst., IV, 3. 11.

131) 김옥순, “칼빈의 디아코니아,” 199쪽.

132) Inst., II. 2. 13.

133) 존H.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178쪽.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소명적 공동체(communio vocatorum)로서의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길은 전적인 인간의 구원에 있다. 지상의 교회가 ‘여기에 있음’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사망을 그늘 아래 신음하는 영적 탕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데 있다.¹³⁴⁾ 하나님은 교회의 품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이는 자녀들이 아직 어릴 동안에 교회의 사역으로써 양육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또한 교회는 그들이 장성해서 신앙의 마지막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모성적인 손길을 베푸는 곳이다. 맥브라이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의 이 사명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필요가 없다. 단지 성실하고 끈기 있게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 외의 모든 일은 부차적인 것이다. 교회는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를 설교된 말씀을 통해 높이 치켜올리는, 본질적으로 케리그마적인 공동체이다. 성령이 활동하는 곳,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이 공동체는 나타난다. 교회는 사건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¹³⁵⁾

최근에 한국사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교적’이란 종교를 종교답게 만드는 매우 기본적인 자질을 언급한다.¹³⁶⁾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134) 전광식, “한국교회의 세속화 이대로는 안된다,” 86쪽.

135) R. P. McBrien, *Church: The Continuing Quest*. Avery Cardinal Dulles, S. J. *Models of the Church*, 김기철 옮김, 『교회의 모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88쪽 재인용

136)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통권184호 (2004.10): 57쪽.

무엇인가? 칼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더 교회의 통치자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제도와 세상 안에 있는 16세기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았다. 칼빈이 수행한 교회개혁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혹은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드러내는 증표임을 밝히는 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원론이다. 이 원론 위에 이타적인 사랑과 구제와 봉사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도 살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도 산다.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섬김으로 나아간다. 칼빈의 사고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삶은 하나님께 대한 고유한 섬김이다.

참된 교회의 존재는 사회적 삶과 그 사회의 삶의 모든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촉진시키는 효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또한 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의 끊임없는 갱신의 충격을 통째로 사회에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자체가 사회적 무질서의 온상이 되는데 협조하는 셈이 된다.¹³⁷⁾ 교회의 섬김은 단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다.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신앙으로 개혁되는 실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한다. 칼빈은 교회가 이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종의 위치’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137) André Biéler, *L' 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옮김, 『칼빈의 사회적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43쪽.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것과 같이 종으로 섬기는 교회 모습을 통해 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히 증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속한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포되고 충실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에 의해서 성립된다. 칼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잡이이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¹³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를 앞에 비뚤어짐이 없고 교회가 세계와 결합함에 어긋남이 없으며 교회가 세계에 책임을 짐에 막연함이 없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본래의 과업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한스 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교회의 본래의 과업은 잡다한 “다른 일들”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영을 통하여 교회에 부과한 소명과 능력과 권위로서의 본래의 과업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전파함에, 그의 증인이 됨에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종말론적 하나님 통치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함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소식이요, 죄 많은 인류의 의인과 성화의 소명의 소식이며,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로운 자유 속에서 신앙과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만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이미 현재에 돌입해 있는 미래를 사는 성령에 의한 삶의 소식이다.¹³⁹⁾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본래적인 과업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룩한 공동체는 바로 제네바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섬기며 각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선별되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파견되는 공동체이다.

138) Inst., I. 6. 1.

139) 한스 쾅, 『교회란 무엇인가?』, 202쪽.

C. 종말론적인 교회

‘종말’이라는 희랍어 ‘eschaton’은 “마지막,” “끝남”(finis)을 뜻하는 동시에 “목적”(telos)을 뜻한다.¹⁴⁰⁾ 종말은 죄와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현 세계의 끝남을 뜻하며 동시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새 창조의 시작,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종말은 단순히 세계의 대재난과 파멸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새 창조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론이다. 종말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회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앞당겨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 희망으로부터 생성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실천에 관한 이론이다.

칼빈 시대의 교회인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제도인 로마교회와 성직자들을 말한다. 교회는 구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서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관이라 본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가시적인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명목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¹⁴¹⁾라고 비판한다.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일 수 있는 교회이며 따라서 세상의 어떤 인간도 확실하게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해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칼빈은 가시적 교회에 대한 불가시적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 안에서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와 나태와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그 구속을 이룬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춘다”¹⁴²⁾ 이 말은 칼빈이 말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명제로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며,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140) 서남동, “종말과 역사”, 『기독교사상』 1959년 1월호, 58.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11쪽 재인용.

141) Inst., IV. 1. 7.

142) Inst., IV. 1. 1.

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였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에서 인간이 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도 그 일원이 될 때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¹⁴³⁾라고 말한다.

가시적 교회는 역사 안에 존재한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하나의 영역이다. 이 역사 안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칼빈은 언제나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에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질서들을 잘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외부적인 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남아 있는 육적인 정욕을 억제하는 강제가 없다면, 사회의 평화나 안전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날이 오기까지는 외적인 강제가 있어야 한다. 칼빈의 국가관은 리스에 의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바지 할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요, 역사를 넘어서야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¹⁴⁴⁾ 따라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불가시적인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죄와 악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된다는 소망이 갖는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의 교회는 단순히 세상과 다른 고도의 도덕과 윤리를 이루어진 사회를 설계하고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단순히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다. 인간의 복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리스는 칼빈의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43) Inst., IV. 1. 3.

144) 존 H.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168쪽.

종말론적 관점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어떤 이상이나 이데올로기의 요구 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요구하는 것 아래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 안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의 요구 하에 있다는 사실은 부패한 이데올로기들과 어떠한 타협도 배제하고 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교묘한 집단 이기주의와 자만심을 정죄하고 이런 이념들에 저항하여 없어지게끔 할 수 있는 고상한 판단기준이나 가치 척도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런데 종말론적 관점은 그런 판단기준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항하는 힘을 제공해준다.¹⁴⁵⁾

그런데 칼빈을 “소망의 신학자(the theologian of hope)”¹⁴⁶⁾로 부르는 이유는 그의 모든 선언들이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교회 현재생활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칼빈에게 있어서 소망은 막연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주시고 또한 그것을 충실히 지키시는 확실한 약속에 기초한 확고하고 확실한 기대이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와와의 친교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신앙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합 된다. 그는 말하기를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에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소망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⁴⁷⁾ 교회의 머리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따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이 역사의 소망이다. 인간은 이 사실을 신앙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우리들의 소망의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다. 퀴스토르프에 의하면, “비록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소망이 ‘가정적인 것’(as if)으

145) 위의 책, 『칼빈의 삶의 신학』, 172쪽.

146) Heinrich Quistorp,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이희숙 옮김, 『칼빈의 종말론』 (성광문화사, 1995), 17쪽.

147) Inst., III, 13, 5.

로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으로서의 소망은 이미 ‘사실적인 것’(is)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¹⁴⁸⁾

교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미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막연히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누구든지 성화된 삶을 꾸준히 계속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¹⁴⁹⁾라고 말한다. 신앙이 오신 분(그리스도)과 그의 구원사업을 되돌아보는데 반하여, 소망은 오실 분과 장차 나타나게 될 그의 구원 사업의 완성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내다본다. 그리스도에게 두는 소망은 그의 미래의 오심에 두는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면류관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완성을 소망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완성에 의하여 그와의 우리들의 친교가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¹⁵⁰⁾

칼빈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파멸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에 의해 형성된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교회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인내심은 “신약성경의 ‘휘포모네’(ὑπομονή)의 뜻과 같이 통제된 기대와 냉정할 정도의 확고함과 빈틈 없는 준비로 기다리는 것이며,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의 역사 안에서 신앙과 소망을 열심히 입증하는 것이다.”¹⁵¹⁾

이 인내심은 사회와의 공존하는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칼빈이 관심을 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

148) H.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29쪽.

149) Inst., III. 2. 43.

150) H.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27쪽.

151) 위의 책, 33쪽.

체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삶의 본모기를 제시하는 일이 있었다. 월러스(R.Wallace)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간의 친교를 통해 참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양육함으로써 이 세상 교육으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바람직한 이 사회의 구성원의 모범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더욱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각 개인들에게 제공된 자유와 자기 표현은 사회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 문제들을 지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인간 사회 전체의 질서를 다시 잡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¹⁵²⁾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교인을 훈련시켜 사람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적인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신 것과 같이 사회 공동체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은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적인 실체로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사회는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 전반에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저변에는 기독교 절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다원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절대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독선과 아집의 공동체를 만들어 결국은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여긴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는 이런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책임이 있음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회적, 종교적 기구가 쉽게 되어 왔기 때문이다.

152)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박성민 옮김,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67쪽.

이러한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 칼빈의 종말론을 토렌스(T. F. Torrance)는 ‘소망의종말론’(the eschatology of hope)으로 특징짓는다.¹⁵³⁾ 칼빈의 ‘소망의 종말론’은 오늘 교회가 처한 비판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가시적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의 소망’은 가시적 교회에서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모두 다 참되고 순결한 교회를 원하지만, 사실 그러한 노력이 완전히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이 함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더불어서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153) T. F. Torrance, *Kingdom and Church :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백철현 옮김, 『종교개혁자들의 종말론』 (서울: 그리스도신학 연구소, 1991), 152쪽

V. 결론

A. 요약

칼빈은 다른 어떤 주요 개혁자들보다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가 신학에 끼친 창조적 공헌들 가운데 하나는 사도신경을 4부로 구분하여 신학의 기초로 삼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것이다. 칼빈은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 곧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서의 교회를 일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교회, 즉 가시적 교회와 구분하지만 결코 차이를 두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시적 모습은 그 불가시성을 드러내주고, 불가시성의 문제는 인간이 교회의 경계를 정할 수 없음과 또 하나님께만 알려질 수 있는 교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음에 기초를 둔다.”¹⁵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불가시적 교회의 실체를 증명하고 실증해 내야 한다. 비록 인간 역사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완전한 일치될 수 없음을 칼빈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한 관념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실존적 산물이다. 교회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선택받은 무리로 규정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시적 교회는 일정한 나타남의 표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말씀과 성례는 참 교회의 표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칼빈의 견해로는,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의를 우리 눈 앞에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다.”¹⁵⁵⁾ 그리고 신앙 안에서 받는 성례만이 효력이 있으며 신앙은 “성령의 고유 활동”¹⁵⁶⁾이기에 성례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서 신앙을 일깨우

154)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이용원 옮김,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175쪽.

155) Inst., IV. 14. 10.

156) Inst., IV. 14. 8.

는 분은 성령이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현장인 이 역사 가운데 관계적인 존재로 있다. 세상과의 가장 두드러진 관계는 국가와의 관계인데, 칼빈은 교회가 존재하는 국가를 신앙과 다른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 영역으로 인정한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창조된 존재들이며 자신의 각자의 기능으로써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다. 비록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서 국가의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국가론은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이론체계로서의 국가론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국가라는 현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영적인 통치 영역인 교회를 통해 알려 주고자 했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간의 상호독립성을 근간으로 한 역동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그래서 안정되고 우호적인 국가 체제 안에서 교회가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칼빈에 의하면, 역사 안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우주적 종말론에 대한 시각을 강하게 보여준다.”¹⁵⁷⁾ 교회는 구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상관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기에 하나님은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하게 하신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에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도 그 일원이 될 때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¹⁵⁸⁾라고 말한다. 칼빈이 말하는 종말은 그리스도의

157) 최윤배, “부처와 칼빈의 종말론”, 『칼빈연구』, 제2집, (2004.10), 253쪽.

158) Inst., IV. 1. 3.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소망은 가시적 교회 안에서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모두 다 참되고 순결한 교회를 원하지만, 사실 그러한 노력이 완전히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교회의 종말론적인 지향은 가시적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B. 평가

칼빈의 교회론은 단순히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의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답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교회란 신자들 위해 군림하는 부동성의 기관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유기체요 상호봉사의 교제이다.”¹⁵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죄 가운데서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에 새롭게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한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 사함 받은 죄인들의 교회는 오직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위로와 명령에 따라서 살며 또 살고자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사회와의 관계에서 칼빈의 교회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칼빈의 교회론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위치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말해준다. 점점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비판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됨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인도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변질된 현상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변질된 형상은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수정과 개혁을 해야 한다. 교회의 대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159) Inst., IV. 1. 3.

것은 선택의 은혜일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포와 섬김도 있음을 칼빈의 교회론은 현대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

둘째, 칼빈의 교회론은 현대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보통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말할 때, 봉사와 나눔을 이야기한다. 비록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사건이야말로 본래 인간이 사회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증거라고 생각했다.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섬기는 길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일은 교회가 인간 사회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며 또한 교회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도입하고 계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만 한다.

셋째, 칼빈의 교회론은 오늘의 교회에게 현실 만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갖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실재이다. 우리들의 현실적 상황의 모순이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다. 비록 우리들 속에서는 소망이 “가정적인 것”으로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적으로서의 소망은 이미 사실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또 사회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위치를 칼빈의 교회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회만이 갖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사회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동성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구원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선포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사회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사회는 때로는 교회에 동조하고,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정도로 교회를 비판하면서 항상 교회와 함께 있다. 이 사실 앞에 교회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서는 달리 존재할 수가 없다”¹⁶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한 도구이자,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성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성육신 시키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신 사람들의 성화를 증진시키려고 이 땅에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다.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공동체이기에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하나의 특성을 교회에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적인 산물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구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관이다. 이 사실은 칼빈의 교회론이 오늘 이 땅의 존재하는 교회에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교회성장을 위한 접근 방법이 방법론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 자체를 위하여

160) 한스 쾨링, 『교회란 무엇인가?』, 203쪽.

교회가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16세기라는 한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본질을 위해 싸웠던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회론에 진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A. 동양서적

-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5권,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안계춘,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9.
- 이규호, 『사람됨의 뜻』, 서울: 제일출판사, 1996.
- 이원규, 『종교사회학-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3.
- 최윤배 외6인 공저. 『개혁교회의 종말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최윤배(책임편집). 『어거스틴,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B. 서양서적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John T. McNeill 2 vols.,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C. 번역서적

-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김지찬 옮김,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André Biéler, *L' 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옮김, 『칼빈의 사회적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옮김,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Avery Cardinal Dulles, S. J. *Models of the Church*, 김기철 옮김, 『교회의 모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 Curt Friedlein, *Geschichte der Philophie*, 강영계 옮김, 『서양철학사』, 서울: 서광사,
1985
- François Wendel, *Calvin: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김재성
옮김, 『칼빈-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Hans Kung, *Was ist Kirche?*, 이홍근 옮김,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 출판
사, 1995.
- Heinrich Quistorp,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이희숙 옮김, 『칼빈의 종말
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Leith, John 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 · 이용원 옮김,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Leith,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옮김, 『칼빈의 삶의 신
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2.
- O. Cullmann, *Christ and Time*, 김근수 옮김, 『그리스도와 시간』, 서울: 나단 출판사
, 1993.
-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옮김,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출판사, 1985.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박성민 옮김, 『칼빈의 사회개혁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옮김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회, 1993

T.F. Torrance, *Kingdom and Church :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백철현 옮김, 『종교개혁자들의 종말론』, 서울: 그리스도신학 연구소, 1991.

D. 논문

현요한, “갈뎡의 교회론: 성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86

E. 기타

김재성, “교회의 본질과 속성”, 『신학정론』, 제22권 2호, 통권 43집, 서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김옥순, “칼빈의 디아코니아”.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양창삼, “교회의 대사회이미지, 이대로 좋은가” 『목회와 신학』 통권169호 (2003.7)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통권184호 (2004.10)

이오갑, “칼빈의 국가론”.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전광식, “한국교회의 세속화 이대로는 안된다” 『목회와 신학』 통권169호 2003. 7월

-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최태영, “선행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